

대학생의 관점에서 본 “상담관계(Therapeutic Relationship)” 기대에 대한 연구

김 지 현 주 은 선[†]

덕성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본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 연구로서 이들의 성별, 상담경험의 유무, 상담문제 유형, 상담지식의 정도에 따라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과연 상담관계를 어떠한 다른 유형의 인간관계와 흡사하다고 대학생들은 보는지를 알아본다. 상담관계는 요인분석을 통해 “지지적인(supportive)”, “합리적인(rational)”, “권위적인(autocratic)”, “예민한(receptive)”, “통찰력 있는(insightful)”의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지지적이거나 합리적인 관계에 높은 기대를 하고, 다음으로 통찰력 있는, 예민한, 권위적인 순서로 보고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차이점은 첫째, 성별에 따라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는 여자보다 상담관계가 더 합리적이고 권위적인 것으로 보았다. 둘째, 상담문제 유형에 따라 ‘성격문제’를 상담문제로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진학/진로 문제’나 ‘인간관계’를 상담 문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상담관계를 더 예민하고 통찰력 있게 기대했다. 셋째, 상담경험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보다 상담관계에 있어서 더 지지적이고 합리적이기를 기대하는 반면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상담관계가 권위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넷째, 상담 지식의 정도에 따라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에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상담지식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대학생은 지식이 약간 또는 많다고 보고한 대학생들에 비해 상담관계를 더 합리적으로 보고 있으며, 상담 지식이 많다고 보고한 대학생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한 대학생에 비해 상담관계를 더 권위적이라고 여겼다. 마지막으로 상담관계와 다른 인간관계와의 유사정도에 반응한 것을 살펴보면 상담의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관계를 친구관계와 유사한 수평적인 관계로 기대한 것이 높았다.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한국 대학생 상담에 대한 제언 및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상담관계, 치료적 관계, 대학상담

김지현은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과정에 재학 중임, 주은선은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주 은 선, (132-714)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19,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전화 : 02)901-8595 E-mail : esjoo@center.duksung.ac.kr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내담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인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관련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학습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장호, 2001). 즉, 문제를 안고 오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대화로써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변화해 가는 인간적인 만남인 것이다. 상담이란 인간관계이며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루어지는 상호관계라는 점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는 상담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가 성공적인 상담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들 중 하나로 보고 있다(Bordin, 1979; Hill & Highlen, 1984; Horvath & Greenberg, 1989). 비록 상담자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 상담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정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상담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상담관계는 여러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은 최근의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순진, 1997; 조성호, 1997; Kokotovic & Tracey, 1990; Reandeu & Wampold, 1991). Orlinsky 등(1994)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에 발표된 심리치료 연구 중 2,300개의 과정과 성과(process-outcome) 연구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4th ed.)”에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성공적인 치료성적을 얻을 수 있는 주요 과정 변인은 심리치료자가 내담자와 얼마나 진솔하게 공감적으로 돈독히 연합할 수 있는 관계, 또는 동맹(bonding, alliance)을 맺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Orlinsky, Grawe, & Parks, 1994). 즉, 치료자의 이론적 배경, 전문성, 경력 등의 그 어떤 변인보다도 내담자와

관계형성의 질이 치료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Goldstein(1971)에 의하면 상담관계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영향을 주는 두 사람의 관계이며 상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효과적인 관계가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간관계로 이루어지기에 그 관계가 상호 이해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내담자의 요구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Rogers(1951)는 상담관계에 대하여 만약 상담관계의 어떤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그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행동변화와 인격적인 발달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의 어떤 관계란 상담자가 갖는 내담자에 대한 진실성과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Rogers는 그의 경험과 조사연구들을 통하여 상담자의 이론이나 방법보다 상담자의 태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렇게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지각을 통해 상호작용하게 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느냐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내담자가 상담자의 역할을 어떻게 지각하고 기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차이가 있다.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감 연구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김은희, 주은선, 2001; 박대한, 1989; 박애선, 1985; 박재황, 1990; 이장호, 금명자, 1990, 1991). 그러나 상담관계를 총체적인 상담이나 상담자의 많은 변인 중 한 부분으로 다루어서 보았지, 하나의 주요 영역으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상담관계를 기존의 도구인 Barrett-Lennard

(1962)의 상담관계 질문지나 Horvath와 Greenberg (1989)의 작업동맹질문지(Working Alliance Inventory: WAI)를 사용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왔다(강혜영, 1995; 김순진, 1997; 정방자, 1986; 조성호, 1997). 그러나 본 연구는 상담관계를 하나의 인간관계로 보아 상담관계를 실질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Leary (1957)의 “개인들의 상호간 행동에 관한 원형 모델(classic model of interpersonal behavior)”에 바탕을 둔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하여, 한국의 대학생 대상으로 상담관계에 초점을 두어 이를 섬세하고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62개의 대학이 있고 대부분의 대학이 명칭은 다르지만 학생상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형태, 2002). 중, 고등학교까지는 대학입학 준비와 적절한 상담기관의 부족 등으로 상담을 받는 경험이 적으나 상대적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의 학생상담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회가 증진된다. 그러나 이들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담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담관계에 대해 한국의 대학생들은 어떻게 기대하는 가를 알아보는 연구는 잠재 내담자들로서 후에 상담을 받고자하는 태도(help-seeking attitude)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과연 남자 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은 어떻게 상담관계를 달리 보는지, 또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의뢰하고 싶은 문제 유형에 따라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가 다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상담을 한번 이상이라도 기관에서 받아 본 대학생과 그렇지 못한 대학생은 상담관계를 어떻게 달리 기대할지, 또 대학생이라면 교양과목이나 기타 개인적 관심으로 나름대로 상담지식이 있을텐데 과연 이들이 나름대로 보고하는 상담지식정도에 따라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마지막

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는 상담관계를 다른 어떤 인간관계와 흡사하다고 보는지를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 주로 상담하는 상담자, 특히 대학 기관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본 상담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이들의 성별, 상담경험의 유무, 상담문제 유형, 상담지식의 정도, 다른 인간관계와의 유사 정도에 따라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 반응은 차이가 있을까?

둘째, 대학생들의 상담 의뢰 문제 유형에 따라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 반응은 차이가 있을까?

셋째, 대학생들의 상담 경험 유무에 따라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 반응에 차이가 있을까?

넷째, 대학생들의 상담지식 정도에 따라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 반응은 차이가 있을까?

다섯째, 대학생들은 상담관계를 어떤 다른 인간관계와 유사하기를 기대할 것인가?

방 법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포된 510부의 설문지 중에서 모두 회수되었는데 문항을 빠뜨렸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34부를 제외하고 47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 특성

문항	내용	빈도	%	결측치
성별	남자	258	54.2	
	여자	218	45.8	
상담경험	있음	96	78.6	6
	없음	374	20.2	
상담문제	진학/진로	263	55.3	35
	인간관계	84	17.6	
	성격문제	81	17.0	
	기타	13	2.7	
상담지식	전혀없음	134	28.2	2
	약간	151	31.7	
	많이	189	39.7	
상담관계에서 유사하기를 기대하는 인간관계	친구관계	195	41.0	14
	부모관계	43	9.0	
	형제/자매	32	6.7	
	선배관계	93	19.5	
	선생님관계	67	14.1	
기타	32	6.7		

전체 조사 대상자들 중에서 남학생이 258명이고 여학생은 218명이었다. 이 중 371명이 상담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1회 이상이라도 상담경험이 있다고 한 대상자는 95명이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의뢰 문제로는 진학/진로에 관한 문제가 2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간관계가 84명, 성격문제가 81명 순이었다. 상담의 지식정도는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0점(전혀 없음)이 134명, 1점이 151명, 2점이 85명, 3점이 94명, 4점이 6명, 5점(아주 많음)이 4명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이 분포도를 고려하여 0점 반응자들을 상담지식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집단, 1점 반응자들을 상담지식이 약간 있다고 보고한 집단, 2점 이상으로 반응한 대학생들을 상담지식이 많이 있다고 보고한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심리치료자들의 자질개발을 위한 국제연구”에서 활용한 공통핵심질문지(Common Core Questionnaire: CCQ)의 상담관계 반응을 29개의 형용사로 알아보는 부분을 사용하였다(주은선, 1998; Joo, 1996). 이를 ‘상담관계 형용사 질문지’로 명한다. 이 형용사들은 사회적 결합(유대)과 사회적 규범(통제)의 두 축으로 만들어지는 개인들의 상호간 행동에 관한 Leary(1957)의 원형 모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Leary의 모델은 사회적인 결합이나 유대, 사회적 규제나 통제의 두 가지 상반되는 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개인은 타인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려 하거나 또는 줄이려 한다. 또한 통제 측면에 있어서는 통제를 가하거나 반대로 복종을 한다는 것이다. Leary의 원형모델에 의하면 이 두 차원을 중심으로 어느 쪽으로 얼마나 많은 혹은 적은 비율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개인의 인간관계 패턴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치료자의 인지적 스타일, 치료자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정서적, 기술적 측면과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형용사들을 추가한 29개의 형용사와 ‘기타’를 포함한 총 30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전혀 아님(0점)’에서 ‘아주 많이(3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형용사와 같이 많이 대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용적인’에 3점을 준 대학생은 1점을 표시한 대학생에 비해 상담자가 자신에게 수용적으로 대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문제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지에 첨가하여 완성하였다. 이 ‘상담관계 형용사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6으로 양호하였다.

통계분석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0.0을 이용해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요인을 내담자의 변인, 즉 성별, 상담 경험의 유무, 상담 문제 유형, 상담 지식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구한 결과 $\alpha = 0.40$ 에서 $\alpha = 0.81$ 까지 나왔다. 산출된 5개의 요인들 중 신뢰도 계수가 가장 낮은 요인 5는 문항이 2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느 것도 삭제할 수가 없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의 요인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아량있는’, ‘상냥한’, ‘헌신적인’, ‘허

용적인’, ‘따뜻한’ 등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고 상담관계에 있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가치, 태도, 행동 등에 있어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수용적이며 우호적, 이해심이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지지적인 (supportive)” 관계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Leary의 모델에서 보았을 때는 ‘유대증진’의 축 방향의 형용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내담자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우리 주변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느끼는 포근함과 조건 없는 수용성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요인 2는 ‘비판적인’, ‘효율적인’, ‘중립적인’, ‘실용적인’ 등의 형용사로 이루어졌고 상담관계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분별력 있고 보다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심사숙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합리적인(rational)”으로 이름을 붙였다. Leary의 모델에서 보았을 때는 ‘부정적 유대’ 축 방향의 형용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담 관계는 유대관계보다는 상담 문제에 초점을 두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마치 이공

표 2. 상담 관계에 대한 반응 요인 분석표

요 인	요 인 명	형 용 사	신뢰도 계수
요인1	지지적인 (supportive)	아량있는, 상냥한, 헌신적인, 허용적인, 따뜻한, 교육적인, 보호적인, 몰입적인, 능숙한, 수용적인	.81
요인2	합리적인 (rational)	비판적인, 효율적인, 중립적인, 실용적인, 신중한, 냉정한, 의욕적인	.71
요인3	권위적인 (autocratic)	권위적인, 도움이 안 되는, 조직적인, 내성적인, 초연한, 지시적인, 당황스런	.61
요인4	예민한 (receptive)	예민한, 요구적인, 단호한	.47
요인5	통찰력 있는 (insightful)	미묘한, 직관적인	.40

계열의 교사들에게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요인 3은 ‘권위적인’, ‘도움이 안 되는’, ‘조직적인’ 등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고, 상담 관계가 형식적인 것으로 상담자가 지시적이며 권위적이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야 할 바를 일방적으로 지시해줌으로써 상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계를 의미하므로 “권위적인(autocratic)” 관계로 명명하였다. Leary의 모델에서 보았을 때는 ‘통제 발휘’ 축 방향의 형용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 상담자의 일방적인 통제발휘의 관계이다.

요인 4는 ‘예민한’, ‘요구적인’, ‘단호한’의 형용사로 이루어졌고 이는 상담관계에 있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요구에 민감하며 정서적으로 내담자에게 흡입하는 순수한 관심과 예민함을 지닌 동시에 한편으로 강력하게 설득 혹은 충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예민한(receptive)”으로 이름을 붙였다. Leary의 모델에서 보았을 때는 ‘통제 수용’ 축 방향의 형용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 요인 4의 ‘권위적인’ 관계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수용적이며 설득적인 치유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요인 5는 ‘미묘한’, ‘직관적인’ 형용사로 구성되었고 상담관계에 있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 태도, 언어를 통하여 내담자의 느낌, 심리 상태 등을 잘 알아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찰력 있는(insightful)”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상담자의 인지적(cognitive)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형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및 해석

성별에 따른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

연구문제 1인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상담관

표 3. 성별에 따른 상담 관계에 대한 반응 요인 차이 검증

요 인	성별	평 균	표준편차	t
지시적인	남자	1.93	.52	.16
	여자	1.92	.53	
합리적인	남자	2.05	.48	4.43***
	여자	1.85	.50	
권위적인	남자	0.66	.46	3.24**
	여자	0.53	.41	
예민한	남자	1.13	.59	3.39**
	여자	0.95	.59	
통찰력 있는	남자	1.19	.70	1.94
	여자	1.07	.66	

* $p < .05$ ** $p < .01$ *** $p < .001$

계에 대한 기대 반응은 차이가 있을까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과 상담관계 5개 요인을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요인을 살펴보면 “따뜻하고 수용적인” 관계요인에 있어서는 남녀에 차이가 없었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상담관계가 “지시적인” 것으로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권위적인”, “예민한” 관계 요인에 있어서 남자대 학생들의 점수가 여자대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남자대학생들이 여자대학생에 비해 상담관계가 지시적이고 비판적이며 분석적이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부정적 유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성별에 따른 기대감 차이가 역할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Hardin와 Yanico (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들의 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과제 지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담자가 지시적이고 정보 제공적이기를 기대하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담의 촉진적인 조건에 기대가 높다고 보고한다는 것이다.

상담문제 유형에 따른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

대학생들의 상담의뢰 문제 유형과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고 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살펴보면 “예민한”, “통찰력 있는” 관계 요인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상담문제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요인에 있어서 상담을 받는다면 성격문제, 진학/진로에 관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순으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다는 대학생들은 다른 문제로 의뢰하고 싶다는 대학생들에 비해 상담관계가 예민하고 또한 상담자가 통찰력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격문제를 상담 문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상담자가 내담자의 민감한 성격, 정서, 감정까지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상담자의 인지적 스타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진학/진로문제나 인간관계를 문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성격문제를 상담문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담자의 예민하고 단호한 관계 속에서 내담자 자신의 성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상담 문제 유형에 따른 상담 관계에 대한 반응 요인 차이 검증

요 인	문제유형	평 균	표준편차	F
지지적인	진학/진로	1.96	.53	2.285
	인간관계	1.92	.51	
	성격문제	1.86	.50	
	기 타	1.62	.73	
합리적인	진학/진로	2.00	.47	2.145
	인간관계	1.88	.54	
	성격문제	1.88	.54	
	기 타	1.82	.54	
권위적인	진학/진로	.61	.46	2.197
	인간관계	.61	.45	
	성격문제	.62	.39	
	기 타	.28	.22	
예민한	진학/진로	1.08	.60	3.711*
	인간관계	.95	.52	
	성격문제	1.13	.64	
	기 타	.61	.47	
통찰력 있는	진학/진로	1.16	.70	3.226*
	인간관계	1.09	.66	
	성격문제	1.23	.63	
	기 타	.62	.85	

* $p < .05$ ** $p < .01$ *** $p < .001$

상담경험의 유무에 따른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

상담경험의 유무에 따라 상담관계 반응에 차이가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표 5. 상담 경험 유무에 따른 상담 관계에 대한 반응 요인 차이 검증

요 인	경험유무	평 균	표준편차	t
지지적인	무	1.95	.51	2.154*
	유	1.81	.56	
합리적인	무	2.02	.46	5.610***
	유	1.67	.57	
권위적인	무	.56	.42	-3.418**
	유	.75	.49	
예민한	무	1.07	.59	1.379
	유	.97	.63	
통찰력 있는	무	1.14	.68	.347
	유	1.12	.72	

* $p < .05$ ** $p < .01$ *** $p < .001$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지지적인”, “합리적인”, “권위적인” 관계 요인에 있어서 상담 경험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지적인” 요인과 “합리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상담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권위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로 반응하였다.

이는 상담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번 이상 상담을 받아 본 사람에 비하여 상담관계에 있어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보다 더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며 보호해주기를 기대하고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담자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상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상담관계를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보는 경향이 더 높는데, 이는 이들의 과거 상담에서 경험한 상담자와의 관계가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로 추측할 수 있다.

상담지식 정도에 따른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

내담자의 상담지식 정도에 따른 각각의 상담관계 요인 5개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ANOVA를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관계요인과 “권위적인” 관계 요인에서 내담자의 상담지식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합리적인”은 상담지식이 전혀 없는, 약간 있는, 많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순으로 상담관계를 기대하고, 이와 반대로 “권위적인” 관계요인은 상담지식이 많이 있는, 약간 있는, 전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순으로

표 6. 상담 지식 정도에 따른 상담 관계에 대한 반응 요인 차이 검증

요 인	상담지식	평 균	표준편차	F
지지적인	전혀없음	1.95	.51	2.718
	약 간	1.99	.51	
	많 이	1.86	.54	
합리적인	전혀없음	2.06	.45	5.246**
	약 간	1.96	.43	
	많 이	1.88	.57	
권위적인	전혀없음	.55	.41	3.865*
	약 간	.56	.38	
	많 이	.67	.50	
예민한	전혀없음	1.10	.64	.728
	약 간	1.04	.59	
	많 이	1.02	.57	
통찰력 있는	전혀없음	1.12	.74	.643
	약 간	1.19	.63	
	많 이	1.10	.68	

* $p < .05$ ** $p < .01$ *** $p < .001$

로 상담관계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추측된다. 상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협력하에 노력하는 것이 아닌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상담지식이 많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또한 대부분이 과거에 상담 경험을 갖고 있기에, 제한된 경험과 상담에 대한 편협된 지식으로 상담관계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기대한 것은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상담관계에서 기대하는 것과 유사한 인간관계에

대한 반응

대학생들은 상담관계를 과연 어떠한 인간관계와 유사하기를 기대할 것인가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 상담경험 유무에 따라 기대하는 유사 인간관계들의 빈도를 알아보았고 이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나타난 바를 살펴보면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남녀 모두 상담관계가 “친구관계”와 유사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선생님 관계”, “선배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모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상담관계에 있어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편안한 친구관계인 수평적인 관계이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상담관계가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 지시해주고 안내해주는 사제지간을 기대하는 순이었고, 무엇보다 형제나 부모와 같은 가족에서 얻을 수 있는 관계는 낮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경험이 없는 사람들 역시 남녀모두가 상담관계를 “친구관계”와 유사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선배관계”, “선생님관계”, “부모관계”, “형제/자매”의 순으로 기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경험이 없는 사람도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담관계에 있어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동시에 편안한 친구와 같은 수평적인 관계를 가장 많이 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제나 부모와 같은 가족에서 얻을 수 있는 관계는 낮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대학생들의 상담관계 기대에 대한 평균 점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지적인, 합리적인, 통찰력 있는, 예민한, 권위적인 순서이거나, 또는 합리적인, 지지적인, 통찰력 있는, 예민한, 권위적인 순서로 상담관계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제일 기대하는 상담 관계는 지지적이거나 합리적인 관계이고, 성별이나, 문제유형, 상담의 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제일 기대가 낮은 것은 권위적인 관계이다. 남자대학생, 진학/진로 문제나 성격문제, 상담경험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상담관계 기대가 높았고, 여자대학생, 인간관계문제,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 지지적인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즉, 관계의 유대증진 여부에 관한 측면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고, 상담자의 인지적 스타일에 대한 기대, 상담자의 통제발휘보다는 통제 수용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상담 관계에서 기대하는 유사한 인간관계의 빈도

성 별	상담경험	친구관계		부모관계		형제자매 관계		선배관계		선생님관계		기 타		전 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남 자	빈 도	15	93	2	18	1	16	7	52	8	27	3	10	36	216
	전체%	17	25.1	2.3	4.9	1.1	4.3	8.0	14	9.1	7.3	3.4	2.7	40.9	58.2
여 자	빈 도	21	66	4	19	5	10	10	24	13	19	2	17	55	155
	전체%	23.9	17.8	4.5	5.1	5.7	2.7	11.4	6.5	14.8	5.1	2.3	4.6	59.1	41.8
전 체	빈 도	36	159	6	37	6	26	17	76	21	46	5	27	91	371
	전체%	40.9	42.9	6.8	10	6.8	7.0	19.3	20.5	23.9	12.4	5.7	7.3	100	100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상담 경험의 유무, 상담문제 유형, 상담 지식의 정도를 내담자 변인으로 선정하여 이 변인들에 따라 내담자들이 상담 관계에 대한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과연 상담 관계를 어떤 인간관계와 흡사하다고 여기는지를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따라 가설 검증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Leary(1957)의 개인들의 상호간 행동에 관한 원형모델에 근거한 29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상담 관계에 대한 반응을 요인 분석한 결과 상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지지적인(supportive)”, “합리적인(rational)”, “권위적인(autocratic)”, “예민한 (receptive)”, “통찰력 있는 (insightful)”의 5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상담 관계에 대한 반응에 있어 “지지적인” 관계는 내담자의 사고, 행동, 태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온정과 신뢰로써 수용해 주며 아랑 있는 유대증진의 관계를 의미하며, “합리적인” 관계는 논리적이며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며 보다 문제 해결 중심으로 냉철하게 보는 유대증진 보다 부정적 유대 축으로 향한 것을 말한다. “권위적인”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형식적이고 권위적으로 지시하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담자의 통제가 많이 발휘되는 관계이고, “예민한”은 민감하게 감수성이 있으며 동시에 강력한 단호함을 뜻하며 상담자의 통제보다는 통제 수용의 순응적인 설득적 관계를 나타낸다. “통찰력 있는” 관계는 아주 세밀하게 직관적으로 주의 관찰력이 있어 내담자의 모든 것을 잘 알아주는 상담자의 인지적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 다섯 개의 상담관계는 각기 다른 스타일의

관계가 마치 다양한 색채 스펙트럼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스타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형용사가 함께 묶인 것은 현재의 한국 대학생들은 이런 스타일의 관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예민하면서 힘이 있는 스타일은 통찰력 있는 스타일과는 구분을 시키는 결과를 통해 관계에 있어서 한국대학생들의 섬세하고 세분화된 기대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담자들은 상담관계 형성에 있어서 막연한 이해보다는 다양한 스타일과 수준의 차이에 대해 섬세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Orliinsky 등(2003)은 이러한 상담관계를 춤에 비유한다. 상담관계가 돈독한 경우는 이는 마치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은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관계가 그렇지 못하면 이 둘은 춤을 추긴 추어도 같은 춤이 아닌 마치 상담자는 왈츠를 추고, 내담자는 힙합댄스를 추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둘째,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상담관계가 더 지지적이고 분석적이며 충고 제공 등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 예민함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선행 연구에서도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지지적이고 비판적이며 분석적인 상담자를 원하고(Tinsley & Harris, 1976), 상담자로부터 충고를 얻고자 하는 기대가 더 크다(Subich & Coursol, 1985)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Hardin과 Yanico (1983)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기대감의 차이가 역할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남자는 과제 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상담의 촉진적 조건에 기대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김은희, 주은선(2001)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대상의 차이로 중,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대학생이 되어서 역할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 상담관계가 더 지지적이고 합리적이며 권위적이지를 바라는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상담관계가 더 진실 되고 신뢰성 있으며 존중받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상담 문제 유형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성격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이 진학/진로에 관한 문제나 인간관계를 상담 문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상담 관계를 더 예민하고 통찰력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 문제가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니 상담자가 내담자의 아주 세밀하고 예민한 정서, 기분까지를 통찰력 있게 살펴주고 이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으로 보여 진다. 또 한편으로는 진학/진로문제나 인간관계를 문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성격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담 관계 속에서의 강력하고 단호함으로써 내담자 자신의 성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문제를 이루고 있는 세부적인 요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상담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단호함을 때로는 섬세함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격 문제를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성격 문제를 상담 문제로 호소하는 대학생의 경우, 의뢰 문제의 복잡적 특징을 고려하여 문제 파악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상담 경험의 유무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상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보다 상담 관계에 있어 더 지지적이며 수용적이고 합리적이

기를 기대하는 한편,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상담관계가 더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특히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에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 본 대학생은 그 경험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기에 그로 인해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데, 과거의 상담자가 특히 권위적이고 일방적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를 심도 있게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상담이 서구에 비해 대중화되지 못한 아시아권 내담자들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첫 번째나 두 번째 회기에 의해 결정한다는 보고가 있는데(Sue & Sue, 1993), 이를 고려하여 대학생을 상담할 시에는 특히 첫 번째 회기 등에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마치 과거의 교도교사와 같은 식의 상담관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상담의 초기에 내담자에게 과거의 상담경험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은 어떠한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상담 지식의 정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상담 지식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상담 지식이 약간 혹은 많이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보다 상담 관계를 더 해결 중심적이며 합리적으로 보고, 상담 지식이 많이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은 상담 지식이 전혀 혹은 약간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보다 상담 관계를 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상담 지식이 아주 많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란 상담 경험이나 나름대로의 관심 등을 통해 상담 지식을 축적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과거에 경험했던 상담자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경향이 커

서 상담관계를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앞의 상담경험 유무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학생들이 알고 있는 상담 지식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고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지식의 정도를 6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반응의 분포에 따라 0점은 “전혀 없음”으로 1점은 “약간” 그리고 2, 3, 4, 5점을 묶어서 “많이” 있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따라서 상담 지식이 많이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상담 지식의 정도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상담 지식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는 사람들과 상담지식이 많이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명확하다. 따라서 내담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냐에 따라서 “상담 관계에 대한 반응”의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내담자에게 상담에 대한 적절한 구조화 작업으로 상담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수정을 시켜주고, 더 나아가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교육시켜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상담 관계에서 기대하는 관계가 다른 어떤 인간관계와 유사한가를 빈도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성별이나 상담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담 관계가 친구관계와 유사하기를 많이 기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에게서 친구처럼 편안하면서 수용적이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상담자가 내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는 수평 관계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담 관계를 “부모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와 같이 수평적인 관계로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덜 형식적이며 친밀한 관계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주은선

(1998)의 치료자들 관점에서 본 상담관계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물론 주은선(1998)의 연구는 서구의 치료자들과 비교를 하여 한국 심리치료자들은 자신이 상담을 할 때 내담자를 어떻게 대한다고 보는가의 연구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 치료자들은 내담자를 대할 때 개인적인 몰입은 적게 하고, 관계형성에 있어서 형식적이나 돌봐줌이 높은 관계라고 보고하였다. 이런 한국 치료자들의 특성은 한국의 전형적인 아버지와 같은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표현이나 몰입보다는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나 그 틀 안에서는 돌봐줌이 높은 관계의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 유형과 유사하다는 결과이다. 이런 상담자 관점은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즉, 다수의 한국대학생이 상담 관계에 있어서 부모관계와 같은 관계를 희망하지 않는데,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관계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Hill과 O'Brien(1999)이 강조하는 내담자 반응에 민감한 상담자의 태도가 더욱더 중요시되는 결과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대학생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친구와 같은 관계, 권위적이지 않고 일방적이지 않은 수평적인 관계로 대하는 것이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첫째, 대학생 상담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동료상담제(peer counseling) 등을 대학상담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학교상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료상담제는 학교 상담 기관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료상담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그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Carr, 1988; Frisz, 1999). 둘째, 다음의 대상자들을 대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남자대학

생, 또는 성격문제를 상담의뢰 문제로 가지고 오는 대학생의 경우 상담관계에 있어 예민하면서 강한 스타일의 관계를 기대하고, 과거에 상담 경험이 있거나 나름대로의 상담지식이 있다고 여기는 대학생의 경우 좀 더 세심한 상담관계 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담의 대중화와 구조화에 대한 중요성인데, 상담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이벤트 등을 통해 대학생들이 상담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상담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수정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하겠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간관계로써 이루어지므로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내담자에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내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내담자들이 바라보는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과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대학생들의 상담 참여를 증가시키고, 조기 종결을 줄이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돕고 긍정적인 상담 성과를 이루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하고 세부적인 내담자 변인에 따른 상담관계 연구와 상담관계를 함께 형성하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과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출한 관계요인을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추후 관계 연구를 권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담자 변인 중 어느 변인이 상담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혜영 (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의 차이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순진 (1998). 내담자의 대상관계 척도, 작업동맹 및 의사소통방식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은희, 주은선 (2001). 내담자 변인과 상담형태에 따른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감 연구- 학생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51-77.
- 김형태 (2002). 21세기 대학상담의 과제. 2002년도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협의회 하계연차대회자료집.
- 박대한 (1989). 상담활동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애선 (1985).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황 (1990). Relationship of culture and attributional style to anticipation about counseling. 대학상담연구, 1(1), 89-104.
- 이장호 (2001). 상담심리학 제 3판. 서울: 박영사.
- 이장호, 금명자 (1990).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 23-45.
- 이장호, 금명자 (1991). 우리나라 대학생의 상담에 대한 기대연구, 학생생활연구, 26(1), 1-18.
- 정방자 (1986). 정신역동적 상담과정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변화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호 (1997). 내담자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 상담자 개입 특성 및 작업동맹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은선 (1998). The psychotherapeutic relationships in Korea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한국심

- 리학회지: 임상, 17(1), 39-56.
- Barrett-Lennard, G. T. (1962). Dimensions of therapist response as causal factors in therapeutic change. *Psychological Monographs*, 76, 43. Whole No. 562.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16, 256-260.
- Carr, R. A. (1988). The city-wide peer counseling program.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 (3), 217-232.
- Frisz, R. H. (1999). Multicultural peer counseling: counseling the multicultura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22 (4), 515-526.
- Goldstein, A.P. (1962). Participant expectancies in psychotherapy. *Psychiatry*, 25, 72-79.
- Hadin, S.I. & Yanico, B.J. (1983). Counseling gender, type of problem, and expectations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294-297.
- Hill, C. E. & Highlen, P. S. (1984). Factors affecting client change in individual counseling: Current status and theoretical speculation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334-369). New York: A Wiley Interscience Publication.
- Hill, C. E. & O'Brien, K.M. (1999). *Helping skills: 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주은선 역 (2001). 상담의 기술. 서울: 학지사).
- Horvath, A. O. & Greenberg, L.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3.
- Joo, E. (1996). *The psychotherapeutic relationship in Korea: Cross-national and internal cultural comparis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Psychology, Committee on Human Development, Mental Health Program.
- Kokotovic, A. M. & Tracey, T. J. (1990). Working alliance in the early phase o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6-21.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 Orlinsky, D. E., Grawe, K. & Parks, B. K. (1994). Process outcome in psychotherapy-Noch Einmal. In A. E. Bergin & S. L. Garfiel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4th ed. pp. 270-376).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Orlinsky, D. E., Ronnestad, M.H., Joo, E., Meyerberg, J. & Willutzki (2003). Relating to patients. In D. E. Orlinsky & M. H. Ronnestad (Eds.) *The Psychotherapist's Perspective: Therapeutic Work,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Personal Lif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eandean, S. R. & Wampold, B. E. (1991). Relation of power and involvement to working alliance: A multiple-case sequential analysis of brief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07-114.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Subich, L. M. & Coursol, D. H. (1985). Counseling expectations of clients and nonclients for group and individual treatment mo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45-251.
- Sue, D. & Sue, D. W. (1993). Ethnic identity:

- Cultural factors in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Asians in America. In D.R. Atkinson, G. Morten, & D.W. Sue (Eds.),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4th ed. pp. 199-210). Dubuque, IA: W.C. Brown.
- Tinsley, H.E.A. & Harris, D.J. (1976). Client expect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173-177

원 고 접 수 일 : 2002.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1. 25

게 재 결 정 일 : 2002. 12. 3



Expectation of Therapeutic Relationship Reported by Korean College Students

Ji-Hyun Kim

Eun-Sun Joo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Korean college students' gender, type of counseling referral problems, counseling experience and the degree of counseling knowledge influence counseling relationship. Also, a question of what kind of human relationship is similar to counseling relationship will be asked. Using 29 adjectives based on Leary's(1957) classic model of interpersonal behavior, 467 Korean college students are surveyed. Five relational factors were obtained which are supportive, rational, autocratic, receptive, and insightful relational factors. The results show that counselors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male students, students who present so called "personality issues", students with previous counseling experience, and students who report to have high in counseling knowledge than their counterparts. Also, most of students respond that they expect the counseling relationship to be similar to that of relating to friends. The authors hope that the results will aid the counselors who are working in university affiliated counseling centers.

Key Words : counseling relationship, therapeutic relationship, counseling college students